

현지조사 후기

황영하
지리학과 박사 연구생

약 1년간의 사전답사와 문헌연구를 거쳐 2025년 겨울방학에 박사학위논문 주제를 확정되는 동시에 <2025년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현지조사 지원 사업>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영광스럽게도 선정되어 2025년 8월과 9월에 중국 베이징 현지조사를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해당 지원 사업으로 약 3주간, 총 2회의 현지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제1차는 8월 14일부터 8월 27일까지이고 제2차는 9월 23일부터 27일까지입니다. 제1, 2차 현지조사를 통하여 얻은 결과는 학술회의 발표와 학술지 논문 투고, 그리고 박사학위논문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현지조사는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베이징을 연구대상지로 선정하게 된 이유는 수도로서의 상징성뿐만 아니라 중국의 정치 중심으로서 정확한 정책 반영과 역사가 깊은 종교문화유산 또한 중요한 이유입니다. 현지조사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문헌조사를 통하여 베이징 먼터우거우취(門頭溝區) 묘봉산(妙峰山) 정상에 위치한 낭낭묘(娘娘廟)를 먼저 사이트로 선정하고, 중국 도교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와 비교분석을 위해서는 베이징 시청취(西城區)에 있는 백운관(白雲觀)과 통저우취(通州區)의 우민관(佑民觀)을 추가하였습니다. 8월에 진행한 제1차 현지조사는 세 개의 도관을 모두 방문하였고, 9월에 마친 제2차 현지조사는 묘봉산 낭낭묘 위주로 조사하였습니다.



그림1. 묘봉산 낭낭묘 입구

그림2. 백운관 정문



그림3. 우민관 입구

중국인으로서 베이징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 있지만, 저에게는 낯선 도시입니다. 언어와 문화에 있어서 적응하여야 할 부분은 없으나 현지조사를 위한 네트워킹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로 인하여 봄에 예정되었던 현지조사는 여름에야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오랜 시간이 소요된 만큼 네트워킹이 예상보다 더 잘 되었습니다. 네트워킹에 흔쾌히 도와주신 중국 학자분들과 소중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해주신 연구참여자분들에게 감사하며 현지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

물리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일정은 묘봉산 현지조사였습니다. 이곳은 베이징 서북부 근교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좋지 못합니다. 시내에서 낭낭묘에 가장 가까운 마을까지 가는 버스는 하루에 3회만 운행하고, 약 1시간 30분에서 2시간이 소요됩니다. 이 때문에 묘봉산 일정은 다른 두 사이트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이 소모되었습니다. 또한, 낭낭묘는 묘봉산 정상에 위치하여 마을에서 올라갈 경로는 승용차와 도보뿐입니다. 저는 주로 후자를 선택하였고, 매일 1시간 가까이 등산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보람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친절하게 환대해주신 연구참여자분들 만나게 되어 조사 과정이 즐거웠고, 그들 사이에서 진행한 참여관찰도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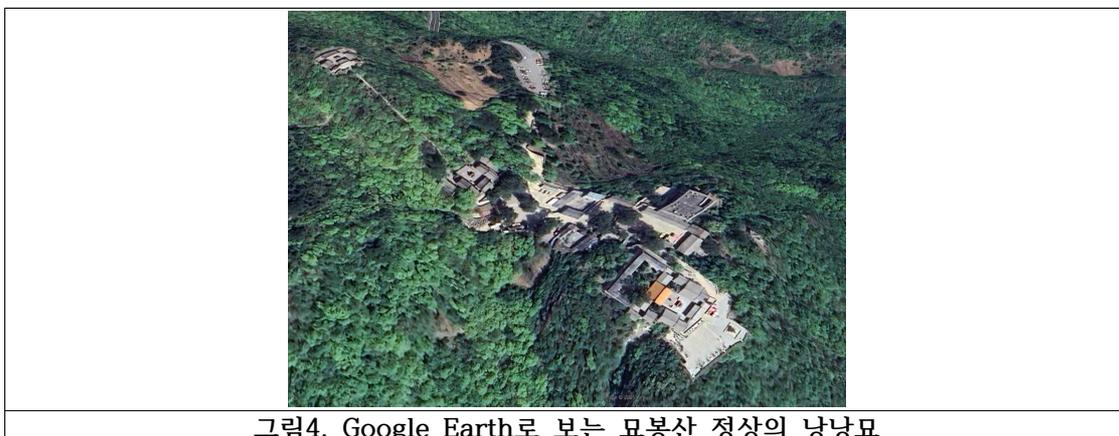


그림4. Google Earth로 보는 묘봉산 정상의 낭낭묘

시내에 있는 백운관은 접근성이 비교적 좋은 반면, 연구참여자의 모집은 쉽지 않았습니 다. 감사하게도 중국도교학원(中國道敎學院)에 재직 중인 교수님께 연락이 닿아 조사가 예상보다 순조로웠습니다. 백운관과 달리 베이징 서남부 근교 한 마을에 위치한 우민관은 찾아가는 데 쉽지 않았습니다. 현지인도 거의 모르는 소규모의 도교 사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민관에서도 친절하게 반겨주신 관계자분들이 있으셔서 조사하는 동안 좋은 경험을 많이 쌓았습니다.

제1, 2차 현지조사를 통하여 제 연구의 관건인 자료를 수집하게 되었으며 중요한 연구대상자분들과 만날 수 있어서 연구자료로 활용할 내용을 예상보다 더 많이 가져왔습니다. 현지조사의 준비과정이 계획보다 길어졌으며 조사 과정에도 어려움과 힘들이가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는 성공적인 현지조사라고 봅니다. 아직 연구가 진행 중이므로 후기에서 구체적인 연구결과를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앞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기대합니다. 이 기회를 통하여 <아시아연구소 현지조사 지원 사업>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